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Supply Chain Insight



채널 구독하기

Weekly 제114호
2024.07.18.(목)

I.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주요 공급망 이슈

- 미국·철강** 美, 멕시코 경유 제3국 수입産 철강·알루미늄에 관세 부과 발표
- 인니·원자재** 인도네시아, 보크사이트 원광 수출 금지 완화 검토
- 중국·통상** 中, EU 대상 무역장벽 조사 착수
- 미국·전기차** 美, 전기차 전환 공장에 보조금 지급 계획 발표

주간 이슈 포커스

- 미국·통상** 美 대법원, 셰브론 원칙 파기...에너지·ESG 정책에 미칠 영향 주목

원자재 뉴스 PLUS

- 희토류** 중국희토그룹, 상반기 2억 위안 적자...희토류 가격 하락세가 원인

II. 월간 공급망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과 중국의 희토류 제한 정책 추진 동향

III. 공급망 더 알아보기



글로벌 해상 교역의 6가지 초크 포인트

IV. 공급망 소식통



수출입 물류비 절감 핵심실무 교육 안내(선착순)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주요 공급망 이슈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미국, 철강 美, 멕시코 경유 제3국 수입품 철강·알루미늄에 관세 부과 발표

7.10일(현지시간) 美 백악관은 멕시코를 경유하는 제3국 철강·알루미늄의 우회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북미 제강 표준* 시행에 합의했다고 발표

* 제강은 쇠물로 철강을 주조하는 과정으로, 북미 내에서 제강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 관세 부과 대상

미국은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에 의거, 멕시코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금번 합의로 북미에서 제강되지 않은 제3국 철강·알루미늄은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

* 수입품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항

현지 언론은 제3국 및 중국산 제품 비중*이 크지는 않으나, 멕시코를 통해 美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중국에 대한 선제 조치로 분석

* '23년 제3국 수입품 철강 수입량은 전체 철강 수입량의 13%에 해당하는 487,000톤이며, 이 가운데 중국산 철강은 334톤에 불과

영국 정당은 성명에서 향후 불공정 무역관행으로부터 북미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

핵심 키워드

우회수출

무역확장법 232조

출처: 백악관 보도자료('24.07.10), 워싱턴 경제통상 브리핑 제24-51호('24.07.11)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인니, 원자재 인도네시아, 보크사이트 원광 수출 금지 완화 검토

7.11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니 의회는 에너지광물자원부에 보크사이트 원광 수출 쿼터 제도 운영 등 기존 원광 수출 금지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보도

* 인니는 '23.6월부터 ▲보크사이트, ▲코발트, ▲주석 등 원광 수출을 금지하고, 이를 제련·가공한 광물에 한해 수출 허용

현지 언론은 정·제련소 건설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원광 생산량이 처리량을 상회*하는 점을 수출 쿼터제 요구 배경 중 하나로 분석

* '23년 인니 보크사이트 생산량은 3,100만 톤인 반면, 전국 제련소 처리 능력은 1,400만 톤에 불과해 1,700만 톤의 재고 발생

부처 대변인은 “부처와 의회가 보크사이트 광석의 수출 완화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핵심 키워드

보크사이트

수출통제

출처: Indonesia Business Post('24.07.15)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중국, 통상 中, EU 대상 무역장벽 조사 착수

 7.10일(현지시간) 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EU를 상대로 태양광·풍력 등 관련 제품 무역장벽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공시

⑤ 상무부는 中 기업 조사에 채택된 EU의 역외보조금규정(FSR)*의 관련 관행에 대해 무역 및 투자 장벽 여부를 조사할 계획

* 역외보조금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 FSR): 제3국 정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EU 역내시장 왜곡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든 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 기업 결합·공공조달에 사전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쏠 분야에 걸친 집행위 직권 조사 시행

⑤ 조사는 '25.1.10일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대외무역장벽조사규칙」 제33조에 의거, 상대국·지역의 對中 무역장벽이 확정될 경우 관련 대응 조치 가능

* 필요시 3개월 연장하여 최대 '25.4.10일까지 조사 가능

핵심 키워드

역외보조금규정

대중제재

출처: 상무부 보도자료('24.07.10) 등 언론보도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미국, 전기차 美, 전기차 전환 공장에 보조금 지급 계획 발표

 7.11일(현지시간) 美 에너지부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및 자국 자동차 산업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전기차 시설 전환에 17억 달러(약 2조 3,500억 원) 규모의 보조금 지원 계획 발표

⑤ 美 정부는 해당 프로그램을 활용, ▲HV, PHV, PHEV, FCV*의 미국 內 생산 투자, ▲차량부품제조 증대 및 부품 제조 시설 지원, ▲자동차 근로자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이 목적

* (HV) 하이브리드 차량 / (PH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 (PHEV) 플러그인 전기 구동 차량 / (FCV) 수소 연료 전지 차량

⑤ 동 프로그램에는 ▲제너럴 모터스(미시간주, 5억 달러), ▲피아트 크라이슬러(일리노이주, 3억 3,400만 달러), ▲현대모비스(오하이오주, 3,260만 달러) 등 8개주 11개 공장이 선정

⑤ 보조금 지급 이전, 선정 기업은 美 에너지부와 수주 관련 협상을 진행하며, 에너지부는 협상 취소 및 선택 철회가 가능

핵심 키워드

전기차

보조금

출처: 美 에너지부 보도자료('24.07.11), 워싱턴 경제통상 브리핑 제24-51호('24.07.11)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주간 이슈 포커스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미국, 통상 美 대법원, 셰브론 원칙 파기...에너지·ESG 정책에 미칠 영향 주목

6.28일(현지시간) 美 연방 대법원은 다수 의견으로 셰브론 원칙(Chevron Doctrine)을 파기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美 행정부의 법률 해석 및 집행에 관한 권한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

* 셰브론 원칙(Chevron Doctrine): 법률의 문구가 불명확할 때 법원이 행정부 주무 기관의 법률 해석과 이행 지침 수립 권한을 폭넓게 존중하는 관례

지난 40년 동안 법원의 행정 소송 판결에서 준용됐던 셰브론 원칙 파기 판정은 美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 온 에너지·ESG 분야 정책에 영향을 미칠 전망

셰브론 원칙 파기 개요

항 목	세부 내용
개 요	사법부가 모호한 법률 조문에 대한 해석 권한을 행정부로부터 회수 행정부의 전문성과 견해를 존중하되, 불분명한 법률 조항의 해석과 집행의 적절성 판단은 사법부 소관이 되어야 함을 명시적으로 판단
파기에 따른 영향	(법률 해석) 법원의 특정 법률 조문이 불분명(ambiguous)하다고 인정되면, 소관 정부 기관 해석을 존중(deference)하여 판결 금번 결정으로 법원이 행정 소송에서 정부 행정 집행의 합리성 여부를 직접 판단 (규제의 불확실성) 정부는 에너지·환경·보건 관련 규제 수립에 어려움 직면 (규정의 성문화) 셰브론 원칙 폐기로 인하여 입법 시 세부 규정을 성문화할 필요성 증대

업종별 정책에 미치는 영향

항 목	세부 내용
① 에너지	에너지 전환·기후변화 대응 정책 추진에 차질 환경보호청(EPA)이 공시한 「석탄·가스 발전소 탄소 저감 규정」은 업계가 제기한 소송에 의해 제동
② ESG	ESG 관련 규제 제동 가능성 존재 ▲연기금 투자 시 ESG 고려 의무화, ▲SEC 상장 기업 기후 공시 의무화 등
③ AI	현재 의회가 추진 중인 AI 규제 입법 수립 난항
④ 전기차·배터리	실질적 영향은 아직 없으나, 향후 법원 판단이 친환경 산업 분야에 대해 영향을 끼칠 가능성 존재

핵심 키워드

셰브론 원칙

행정소송

출처: 워싱턴 경제통상 리포트('24.07.08) 등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원자재 뉴스 PLUS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참고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히토류 중국히토그룹, 상반기 2억 위안 적자...히토류 가격 하락세가 원인

❏ 초대형 히토류 국유기업인 중국히토그룹의 상반기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31~240% 감소하여 순이익 2억 3,100만~5,100만 위안(약 440억~480억 원) 적자

➡ 중국히토그룹은 히토류 제품 가격 하락이 기업 실적 악화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밝힘

출처: 제일재경(第一财经)('24.07.08) 등 언론보도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7월 2주)

비철금속 | 美 금리인하 기대로 동 가격↑, 재고량 증가로 니켈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3년	'24.1~6월	전년비(%)	7.1주	7.2주	전주비(%)
동	8,478	9,097	7.3	9,644	9,727	0.9
니켈	21,474	17,506	△18.5	17,128	16,823	△1.8
아연	2,647	2,641	△0.2	2,921	2,888	△1.1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동) 美 금리인하 기대로 위험자산 투자 선호 심리가 회복됨에 따라 전기동 가격 상승압력 발생

❏ (니켈) 中 Tsingshan社의 인니 플랜트 니켈 생산분이 하반기 런던금속거래소(LME)에 인도 예정으로, 재고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방압력 발생

➡ 다만 BHP社 등 주요 기업의 니켈 시장 약세에 따른 생산 중단으로 인하여 상기 하방압력 일부 상쇄

철강 | 中 제강사 생산 부진으로 철광석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3년	'24.1~6월	전년비(%)	7.1주	7.2주	전주비(%)
연료탄	173.32	131.96	△23.9	136.13	135.57	△0.4
원료탄	295.71	276.14	△6.6	253.84	251.40	△1.0
철광석	119.32	118.42	△0.8	115.85	107.81	△6.9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연료탄(호주 뉴캐슬 FOB 기준, ICE 기준), 원료탄(호주 FOB 기준, Premium Low Vol), 철광석(중국 주요항 CFR 기준, 62% 분광)

❏ (철광석) 中 제강사들의 조강 생산둔화에 따른 원재료 수요 부진으로, 가격 하방압력 발생

❏ (유연탄) 유가 하락 및 中 경기 부진에 따른 가격 하락세 시현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7월 2주)

희소금속 | 수요업체의 산발적 구매로 탄산리튬 가격↓, 中 공급과잉으로 코발트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3년	'24.1~6월	전년비(%)	7.1주	7.2주	전주비(%)
페로망간	1,266	1,203	△4.9	1,340	1,340	-
탄산리튬	35,697	14,331	△59.9	12,532	12,415	△0.9
수산화리튬	37,972	12,963	△65.9	11,436	11,345	△0.8
코발트 (U\$/lb)	17.82	16.90	△5.2	16.55	16.55	-
산화 디스프로슘 (희토류)	330,258	273,725	△17.1	252,300	246,100	△2.5
산화 네오디뮴 (희토류)	78,383	54,242	△30.8	51,080	50,850	△0.5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페로망간(중국 FOB 75%), 탄산·수산화리튬(중국 내수가격, 99.5%min, 56.5%min), 코발트(유럽 in-warehouse 99.8%min), 산화디스프로슘(중국 FOB 99.5%min), 산화네오디뮴(중국 FOB 99.5~99.9%)

 **(탄산리튬)** 낮게 형성된 가격에도 수요 업체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산발적으로 구매하며 수요가 둔화해 전주 대비 하락

 수산화리튬은 원료인 스포듀민 정광(6% 품위)의 가격 하락에 따른 가격 하방압력 발생

 **(코발트)** 中 코발트 금속가는 공급과잉으로 전주 대비 하락했으나, 유럽 코발트 금속가는 제한된 현물 활동으로 전주 가격 유지

에너지 | 美 허리케인 악화 및 중동 리스크 완화 기대로 유가 하락세

품목	연평균 (U\$/bbl)			주간평균 (U\$/bbl)		
	'23년	'24년	전년비(U\$/bbl)	7.1주	7.2주	전주비(U\$/bbl)
두바이유	82.10	83.49	1.39	86.75	85.47	△1.28
브렌트유	82.17	83.61	1.45	86.83	85.22	△1.61
WTI	77.60	79.10	1.49	83.31	82.11	△1.20

* 자료원: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등

 **(원유)** ▲美 허리케인 악화, ▲중동 리스크 완화 기대 등으로 유가 하방압력 발생했으나, 美 원유재고 감소 등은 유가 하락폭 제한

 허리케인 베릴이 미국에 상륙했으나, 원유 생산설비 및 정제설비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임에 따라 허리케인 상륙을 앞두고 시장에서 고조된 공급 차질 우려 완화

 7.5일(현지시간) 기준 美 상업 원유 재고는 약 4억 4,510만 배럴로 전주 대비 약 340만 배럴 감소

월간 공급망

◆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과 중국의 희토류 제한 정책 추진 동향

작성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김단비 전문관

희토류에 대한 글로벌 수요는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은 희토류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희토류 공급망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알아보자.

1. 배경

☞ 미-중 경쟁 심화에 따라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은 자국의 희토류 생산과 수출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지속 정비

- ☞ 중국 기업은 자금과 기술, 생산비용의 우위를 바탕으로 현재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 내 높은 점유율 보유
 - ▶ 해외 희토류 자원의 개발, 하류 산업의 분리·제련 등의 산업 사슬 우위 확보 등 희토류 개발 정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결과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보유
- ☞ 중국은 희토류의 전략적 측면과 자국의 독점적 지위를 인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희토류 공급망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
 -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을 검토하고 최근 중국의 정책 정비 동향을 살펴보고자 함

2.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 동향

☞ (수요) 글로벌 친환경 정책에 따라 영구자석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희토류 수요도 증가

- ☞ 전기차와 풍력터빈의 구동 모터에 사용되는 네오디뮴(NdFeb) 영구자석이 희토류의 가장 큰 수요처로 부상
 - ▶ 영구자석을 전기차 구동 모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온에서도 안정적으로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오디뮴(Nd), 디스프로슘(Dy)과 테르븀(Tb) 같은 희토류 원소를 첨가
 - ▶ 디스프로슘(Dy)의 경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풍력발전 터빈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며, 통신 및 탐지, 유도 무기, 전투기 엔진, 차량 모터 등 군사 분야 재료로 활용

* 전기차 모터 영구자석에는 2~3kg 희토류가 투입 / F-35 전투기에는 약 920lb(417kg), 이지스함(DDG-51)에는 5,200lb(2,358kg)의 희토류가 소요

[표 1] 네오디뮴 영구자석의 글로벌 수요 전망

사용 분야	2020년		2030년		2050년	
	총량(Kt)	비중	총량(Kt)	비중	총량(Kt)	비중
풍력터빈	16.9	14.20%	139.2	36.00%	273.7	36.30%
전기차	7.3	6.10%	114.1	29.50%	266	35.30%
소비가전	35.1	29.40%	41	10.60%	65.4	8.70%
산업용 모터	36	30.20%	53.7	13.90%	85.7	11.40%
차량용 비구동계 모터	9.4	7.90%	18.3	4.70%	29.3	3.90%
기타 소결자석	6.5	5.50%	9.6	2.50%	15.3	2.00%
본드자석	8	6.70%	11.1	2.90%	17.7	2.30%
총계	119.2	100%	387	100%	753.2	100%

[자료원] 「Rare Earth Permanent Magnets: Supply Chain Deep Dive Report」, Department of Energy('22.2.24)

▣ (공급망 현황) 글로벌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 가치사슬에서 중국은 80% 이상의 시장점유율 차지하고, 자석생산의 거의 모든 단계가 운영되는 유일한 국가

- ⑤ (자원 분포) 희토류 자원은 중국, 베트남, 러시아, 브라질 등에 분포해 있지만, 가공 재료 생산 시설과 합금 등 제조시설은 중국에 편중
 - ▶ 미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은 약 1억 2,000만 메트릭톤으로 추정되며, 중국(37%), 베트남(18.3%), 러시아(17.5%), 브라질(17.5%) 순으로 매장
- ⑤ (공급망 분포) 희토류의 영구자석 공급망 단계는 크게 채굴(mining) 등 원자재 생산, 산화물 분리(separation) 및 금속 정제(refining) 등 가공 재료 생산, 합금 제조 및 영구자석 제조(manufacturing)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생산공정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압도적

[표 2] 국가별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 공정 점유율 (채광: '21년, 기타: '20년 기준)

국 가	채굴	분리	정제	자석합금 제조
중국	60%	89%	90%	92%
미국	15%	-	-	<1%
미얀마	9%	-	-	-
호주	8%	-	-	-
마다가스카르	1%	-	-	-
인도	1%	1%	-	-
러시아	1%	-	-	-
태국	3%	-	~3%	-
말레이시아	-	7%	-	-
에스토니아	-	1%	~2%	-
일본	-	-	-	7%
베트남	<1%	-	~3%	1%
라오스	-	-	~2%	-
독일	-	-	-	<1%
슬로베니아	-	-	-	<1%
핀란드	-	-	-	<1%
영국	-	-	<1%	-
기타 국가	1%	2%	<1%	<1%

[자료원] 「Rare Earth Permanent Magnets: Supply Chain Deep Dive Report」, Department of Energy('22.2.24)

- ⑤ **(분리)** 분리 단계의 대부분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처리 공정의 환경 문제와 비용으로 전체 공급망 대체가 어려운 측면 존재
 - ▶ 분리 공정의 89%가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7%가 말레이시아, 1%가 각각 인도, 에스토니아 순, 특히 환경 문제가 대두되는 중희토류 분리*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00%에 가까운 상황
- * 중희토류 대부분이 중국과 미얀마에서 발견된 이온 광산에서 나오며, 이온 광산에 포함된 희토류의 경우 화학적 프로세스를 통해 분리, 정제 작업을 해야 해서 다른 원소들보다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더욱 큼
- ⑤ **(정제)** 희토류 정제의 90%가 중국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중국이 보유한 정제시설 규모를 대체할 국가가 없는 상황
 - ▶ 중국 이외, 베트남, 에스토니아, 라오스, 태국 등 4개국이 각각 글로벌 희토류 정제시설의 약 2~3% 비중, 영국에서 1% 이하 비중을 차지
- ⑤ **(제조)** 중국은 희토류 채굴뿐만 아니라 자석합금 등 제조 분야에서도 기술을 크게 향상, 높은 점유율 유지
 - ▶ 일본은 네오디뮴(NdFeB) 영구자석 생산에서 7%를 차지하여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자석 생산국이나 합금 생산을 전문으로 하며, 채굴 능력은 부재하여 원재료는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

3. 중국의 희토류 제한 정책 추진 동향

☐ 중국은 희토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희토류 공급망 관리를 위해 생산, 수출, 투자 제한 정책을 추진

- ⑤ **(생산 제한)** 중국 정부는 ▲희토류 관리조례, ▲중국희토그룹 설립 등을 통해 희토류 생산량을 엄격하게 관리
 - ▶ '21.1월 공신부는 '희토류 관리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여 희토류 총량 관리, 추적 및 비축 메커니즘 구축 등을 명시
 - ▶ 중국 정부는 희토류의 전체 생산 및 가공량을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업에게 매년 할당하고 있으며 할당되지 않은 기업의 희토류 생산 및 가공을 엄격하게 금지
 - ▶ '23년 할당된 기업은 중국희토그룹, 북방희토, 샤먼텅스텐, 광동희토 등 4개 기업에 불과*하며 모든 희토류 그룹은 제련 및 분리 생산 등을 적시에 보고하고, 기업의 내부 제품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희토류 유통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함
- * '21.12월 기존 희토류 기업의 통폐합을 통해 '중국희토그룹'을 설립하여 희토류 자원의 관리를 통합
 - ▶ 공신부와 자원부는 주기적으로 중국 희토류 생산의 할당량 및 생산 광산과 기업의 목록을 담은 「희토류 채굴, 제련, 분리 통제지표」를 발표하여, 사실상 중국 정부가 생산량과 가격 통제
- ⑤ **(수출 제한)** 「수출허가관리 물품목록」에 따라 희토류 수출에 대해 엄격한 허가관리 시행
 - ▶ '22.12월 상무부, 해관총서는 「수출허가관리화물목록('23년)」 발표하였으며, 수출허가증 관리 대상 화물에 희토류 67종(세관 품목분류 10단위 기준)을 포함
 - ▶ 이외, 중국은 희토류의 수출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는 「대량 제품에 대한 수출입 보고 통계 조사 제도」 시행('23.11월)

- ➡ **(투자 제한)** 외국인 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희토류 광산 투자 금지
 -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외국인 투자 진입 특별관리 조치'를 발표하고 희토류 및 기타 광물 산업의 외국인 투자금지 정책을 시행하여 희토류 광산에 대한 외국자본 유입 차단
 - ➡ **(기술 수출금지·제한)** '01년부터 「중국 기술 수출금지 제한 목록」을 통해 희토류 관련 기술의 수출을 제한해 왔으며, 사실상 생산공정 쏠 단계(채광-분리-정제-제조)에 해당하는 희토류 관련 기술을 금지·제한 목록에 포함
 - ▶ **(수출금지)** 기술 수출금지 목록 11조 '희토 제련·가공·활용 기술' 항목에 ▲희토류 추출 분리 공정 기술, ▲희토류 금속 및 합금 재료의 생산 기술, ▲사마륨-코발트, 네오디뮴 자석(NdFeB), 세륨 자성체 설비 기술, ▲희토류 봉산산소칼슘 제조 기술 등이 포함
- * '23년 기술 목록의 개정을 통해 산업적 중요도가 높은 희토류 핵심 제품인 영구자석 제조 기술을 신규 추가하여 희토류 공급망에 대한 통제 범위를 확대
- ▶ **(수출제한)** 이밖에, 제한 목록 16조 비철금속 채굴업 항목에서 이온형 희토류 광산 침출 공정이 포함 되어있으며 33조 비철금속 제련·압연 가공업 항목에서도 ▲희토류의 채광·선광·제련 기술, ▲희토류 추출제의 합성공정·배합 기술이 포함

최근 중국 국무원은 희토류 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 목적으로 제정된 희토류 관리조례 최종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희토류의 국가 소유를 명문화

- ➡ **(개요)** 초안 공개('21.1.15) 이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발표('24.6.29 / '24.10.1. 시행)
 - ▶ 최종안은 조례 적용 범위, 관리체제, 총량 조정·통제, 수출입 관리, 비축관리, 환경보호, 판매 및 유통, 법적 책임 등의 내용을 포함(기존 29개→32개 조항으로 확대)
- ➡ **(주요 내용)** ▲희토류 국가 소유 명문화, ▲수출입 관리 강화, ▲기업의 희토류 관련 정보 기재 의무화
 - ▶ **(희토류 국가 소유 명문화)** 중국은 다양한 제도들을 통해 희토류를 지속 관리하여 왔지만, 이번 조례 최종안을 통해 희토류의 국가 소유를 최초로 명문화
 - ▶ **(수출입 관리 강화)** 수출입 규정 위반 시 처벌 사항 추가(23조, 25조, 27조) / 제품 이외 기술, 공정, 설비도 수출 관련 규제 대상에 포함(15조, 24조)
 - ▶ **(정보 기재 의무화)** 국무원의 산업 및 정보화 주관 부서가 추적 정보 시스템을 구축 및 관리, 관련 부서 간 데이터 공유(14조) / 관련 기업*은 희토류 제품 유통 정보를 제품 추적 정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미기재 시 벌금 부과(15조, 25조)

* 희토류 채굴, 제련·분리, 금속 제련, 종합 이용 및 희토류 제품 수출 중사 기업

4. 시사점

최근 (희토류 공급망) 중국은 희토류 채굴부터 영구자석 제조까지 희토류 공급망의 전주기를 자국 내에 보유한 유일한 국가로 영향력 유지 중

- ⑤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희토류 생산, 정제, 제조 생산 공정 중 일부 단계에서만 운영하여 전체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 공정 중 일부분은 중국에 의존
 - ▶ 일본, 독일, 핀란드,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도 자석을 생산하고 있지만, 자석생산을 위한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

📌 (중국의 공급망 정책) 희토류 공급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공급망 내 자국의 통제 수단을 확대

- ⑤ 중국은 희토류의 전략적 측면과 자국의 독점적 지위를 인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희토류 공급망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
 - ▶ 희토류의 생산량, 투자, 수출 등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기에 관련하여 희토류 공급망에서 중국이 사용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많은 상황
 - ▶ 최근에는 희토류 관리조례 최종안 등을 통해 희토류 제품 유통 정보의 전산 시스템 입력을 의무화하면서 희토류 공급망 정보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는 추세

📌 (전망) 각국에서 중국 의존도를 감축하기 위한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망 구축 정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체에는 시간 소요 예상

- ⑤ 희토류의 가장 큰 수요처인 희토류 영구자석의 생산 공정이 채굴부터 산화물 분리, 정제, 제조 단계까지 여러 단계로 세분되어 있고, 모든 공정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독보적인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공급망 대체에는 상당 시간 소요 전망
 - ▶ 이에 따라 일부 생산 공정을 다른 국가와 협력하여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참고문헌〉

- 김단비, 임산호(23.5.24), 「주요국 희토류 공급망 검토 : 중국 희토류 영구자석 기술 수출금지 목록 추가 계기」, 경제안보 Review, 경제안보외교센터.
- 한국무역협회(2021),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희토류 공급망 현황 및 시사점」.
- 미 에너지부 홈페이지(2022.2), 「Rare Earth Permanent Magnets Supply Chain Deep Dive Assessment」.
- 미 상무부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Office of Technology Evaluation (2022.9), 「The Effect of Imports of Neodymium-Iron-Boron (NdFeB) Permanent Magnets on the National Security」

공급망 더 알아보기

◆ 글로벌 해상 교역의 6가지 초크 포인트

원문 The Six Choke Points That Can Upend Global Trade(Bloomberg) 등

해상 교역은 분쟁,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번 호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의 주요 길목인 해상 물류의 초크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자.

*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주요 길목

📌 파나마 운하

- ▶ 파나마 운하는 파나마 지협을 가로질러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고 아메리카 대륙을 남북으로 나누는 인공 수로
- ▶ 파나마 운하는 해수면보다 높은 산지에 위치해 있어 가튼 호수로부터 담수를 끌어 올려 운영된다
- ▶ 파나마 운하 내 선박은 계단식 갑문*을 이용해 이동한다. 갑문에 물을 채워 더 높은 위치의 갑문으로 올린 후, 선박이 지나면 갑문에 물을 빼 내려가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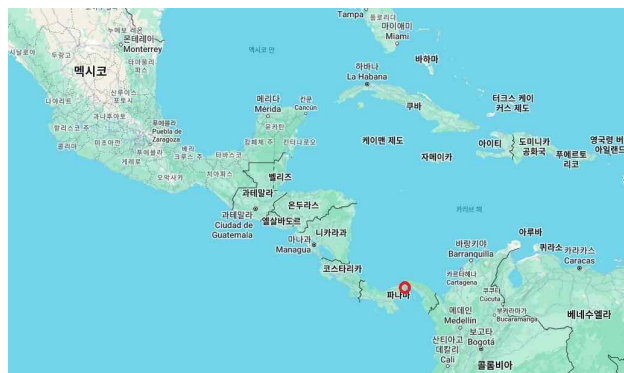
* 운하 등에서 선박을 통과시키기 위해 수위의 고저를 조절하는 수문

- ▶ 美 동부와 서부 사이를 항해하는 선박은 파나마 운하를 경유하면 남아메리카 해안을 돌아서 가는 매우 긴 우회로를 대체할 수 있다
- ▶ 글로벌 해상 무역량의 3%, 프로판 해상 무역량의 19%가 파나마 운하를 통과한다
- ▶ 지난해 기후변화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유례없는 가뭄으로 가튼 호수의 수위가 낮아져 파나마 운하의 통행 선박 수 제한 조치가 시행되었다

* 적도 부근 동태평양과 중앙태평양의 바닷물 온도가 높은 상태로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

- ▶ 파나마 운하 통행에 차질이 생기면서 통상 30일 정도 걸리던 부산항-美 서배너항 운항이 45일로 지연되었다
- ▶ 일일 통과 선박 수는 올해 1월말 최저치인 21척을 기록한 후 증가하고 있으며, 늦여름에는 라니냐 현상*으로 인해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적도 부근 동태평양과 중앙태평양의 바닷물 온도가 낮은 상태로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



☐ 호르무즈 해협

- 북쪽으로 이란, 남쪽으로 아랍 에미리트와 접하는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해협이다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에미리트, 카타르 등 페르시아만 연안의 주요 중동 국가를 오가기 위해 지나야 하는 곳이다
-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주요 운송로로서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글로벌 해상 무역량의 11.1%, 원유 해상 무역량의 30%, 천연가스 해상 무역량의 19%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 한국이 수입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카타르산 원유의 대부분이 이 해협을 지나고 있다
- 최근 중동 지역 분쟁의 확산으로 '원유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에 전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 2024년 1월 11일 이란 해군은 미국 유조선을, 4월 13일에는 포르투갈 선박을 나포하였다



호르무즈 해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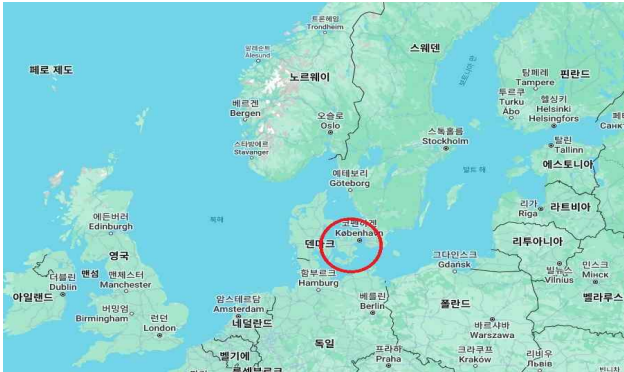
밥 엘만데브 해협

☐ 밥 엘만데브 해협

- 밥 엘만데브 해협은 아라비아 반도 남서부와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 위치하며, 홍해와 아덴만을 연결하는 해협이다
- 홍해가 수에즈 운하에 의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관문이 된 후 지중해에서 인도양으로 나가는 길목에 위치한 밥 엘만데브 해협은 중요한 해상 수송로가 되었다
- 중동에서 유럽·북미로 수출되는 대부분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밥 엘만데브 해협을 지난다
- 글로벌 해상 무역량의 8.7%, 원유 해상 무역량의 13%, 천연가스 해상 무역량의 8%가 밥 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한다
- 예멘 북서부를 장악한 후티 반군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홍해에서 민간 유조선과 상선들을 잇달아 공격하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심화되고 있다
- 대형 컨테이너 업체들은 후티 반군의 공격을 피해 아프리카 주변으로 우회하면서 운송 기간이 지연되고 운송 요금도 증가했다

☐ 데니쉬 해협

- 데니쉬 해협은 발트해와 북해를 잇는 덴마크, 스웨덴, 독일 사이 3개의 채널로 구성되어 있다
- 유럽향 러시아산 석유의 대부분이 데니쉬 해협을 지난다
- 글로벌 해상 무역량의 3.9%, 원유·석유제품 해상 무역량의 7%가 데니쉬 해협을 통과한다
- 국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러시아가 노후 선박을 동원해 석유를 운송하면서 2022년 이후 해상 사고 위험이 상승하였다
- 유조선 사고가 발생하여 데니쉬 해협에서의 선박 운행이 중단될 경우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데니쉬 해협



말라카 해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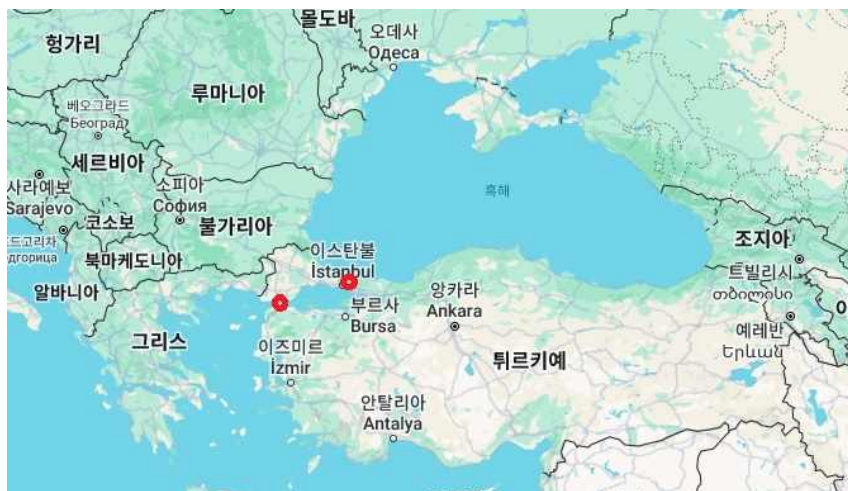
☐ 말라카 해협

- ❖ 말라카 해협은 동남아시아의 말레이 반도 남부와 수마트라섬 사이에 있는 좁은 해협이다
 - ▶ 말라카 해협은 동남아시아에서 태평양과 인도양을 이어주는 해협으로, 아시아와 중동·유럽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 ❖ 말라카 해협은 글로벌 해상 무역량의 23.7%, 원유 해상 무역량의 45%가 운송되는 중요한 해상 관문이다
 - ▶ 한국 등 동북아시아로 수입되는 원유의 90% 이상이 말라카 해협을 경유한다
- ❖ 싱가포르에서 인도양으로 들어가는 해협 초입은 수로가 좁고 평균 수심이 얕아 해적질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 ▶ 2015년 발생한 전세계 해적 공격 246건 중 200건이 말라카 해협을 비롯한 동남아 해역에서 일어났다
- ❖ 태국 정부는 말라카 해협을 대체할 수 있는 크라 운하* 건설을 수차례 추진해왔으나, 비용 등의 문제로 번번이 무산되었다

* 태국과 말레이시아 국경 지역의 크라 지협을 연결하는 운하

☐ 터키 해협(보스포루스, 다르다넬스 해협)

- ❖ 터키 해협은 에게해, 지중해, 흑해를 연결하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해협이다
 - ▶ 터키 해협은 터키 북서부에 위치하며, 보르포루스 해협과 다르다넬스 해협으로 구성된다
- ❖ 터키 해협은 러시아가 흑해 항구에서 석유와 기타 원자재를 운송하는데 필요한 요충지다
 - ▶ 글로벌 해상 무역량의 3.1%, 석유제품 해상 무역량의 5%가 터키 해협을 통과한다
 - ▶ 잦은 안개와 복잡한 해류로 인해 터키 해협은 선박 사고에 취약하다
 - ▶ 터키 해협에서 유조선 사고가 발생하면 글로벌 해상 물류 공급망에 병목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공급망 소식통

수출입 물류비 절감 핵심실무 교육 안내(선착순)

작성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한국무역협회는 「제 21기 수출입 물류비 절감 핵심 실무」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은 ① 운임의 구성 요소 및 최근 운임 동향 이해하기, ② 물류비 절감을 위해 Incoterms 2020 조건 적절하게 활용하기, ③ 운송수단 및 화물유형별 물류비 절감 방안 학습하기, ④ 물류 전략 수립에 필요한 인사이트 습득하기를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개요

- 대상: 물류비 절감에 관심 있는 화주업체 임직원(선착순 30명)
- 일시: 2024.8.9.(금) 10:00~17:00
- 장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COEX) 4층 무역아카데미 강의실
- 수강료: 일반 28만 원 | KITA 회원사 23만 원

☐ 프로그램 상세

주제	교육 내용
운송 수단별 이해	- Suez Canal 사태 이후 물류시장의 변화 -해상/항공/복합운송
수출입 프로세스 이해	-수입/수출 운송 업무 절차 -Intra Asia/중동/호주
대륙별 운송 핵심	-북미/남미 -유럽/아프리카
해상/항공 물류비 이해	-해상운임 구조 -항공운임 구조
인코텀즈	-인코텀즈의 올바른 이해 -EXW/FCA/FOB/CIF
수출입 물류비 절감 포인트	-사전계획을 통한 물류비 절감 방안 -전략적 운송수단 선택을 통한 물류비 절감 -선적화물/과부가세 견적/입찰/리스크 관리 등

* 수업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이 모이지 않을 경우, 연기 또는 폐강될 수 있으며 폐강 시 별도로 문자 메시지 발송/안내하고 있습니다.

☐ 신청·문의

- 신청 방법: [수강신청 바로가기] 클릭 후 우측에 표기된 [수강신청하기]에서 안내에 따라 진행
- 관련 문의 : ☎ 02-6000-5375(한국무역협회 무역연수실)

글로벌 경제지표 [’24.7.16일 (화)]

작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환율

구 분	’22년	’23년	’24.2월	7/12	7/15	7/16	전일비	전년말비
₩/U\$	1,264.50	1,288.00	1,331.50	1,379.60	1,382.80	1,384.90	0.15%	7.52%
선물환(NDF, 1월물)	1,265.30	1,286.80	1,329.30	1,376.50	1,380.50	1,380.40	△0.01%	7.27%
₩/CNY	181.44	181.37	185.10	189.22	190.34	190.57	0.12%	5.07%
₩/¥100	945.56	912.25	888.91	866.91	874.08	873.37	△0.08%	△4.26%
¥/U\$	133.73	141.19	149.79	159.14	158.20	158.57	0.23%	12.31%
U\$/EUR€	1.0617	1.1105	1.0835	1.0866	1.0886	1.0886	0%	△1.97%
CNY/U\$	6.9630	7.1092	7.1938	7.2640	7.2636	7.2653	0.02%	2.20%

* ’23년 평균 환율: (₩/U\$) 1305.9원, (₩/¥100) 931.6원 / ’24년 평균 환율(’24.1.1일~현재): (₩/U\$) 1353.1원, (₩/¥100) 885.9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3년 최저(해당일)	12/29('23년)	7/15	7/16	전일비	'23년 최저비	전년말비
원유(두바이)		70.31(3.20일)	77.08	84.69	83.83	△0.9	13.5	6.8
						△1.0%	19.2%	8.8%
철광석		97.35(5.24일)	140.50	108.75	107.25	△1.5	9.9	△33.3
						△1.4%	10.2%	△23.7%
비철 금속	구리	7,812.50(10.5일)	8,476.00	9,679.50	9,565.50	△114.0	1753.0	1089.5
						△1.2%	22.4%	12.9%
	알루미늄	2,068.50(8.21일)	2,335.50	2,404.00	2,377.00	△27.0	308.5	41.5
						△1.1%	14.9%	1.8%
	니켈	15,885.00(11.27일)	16,300.00	16,420.00	16,435.00	15.0	550.0	135.0
						0.1%	3.5%	0.8%

반도체

구 분	’21년	’22년	’23.12월	’24.1월	’24.2월	7/11	7/12	7/15	7월(~15)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99	3.07	1.74	1.86	1.95	1.99	1.99	1.99	1.95
(%, YoY)	29.9%	△23.0%	△14.8%	△3.6%	6.6%	32.7%	32.8%	33.3%	31.0%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6.55	7.25	6.38	6.38	6.42	6.33	6.33	6.33	6.33
(%,YoY)	14.7%	10.7%	△2.3%	△1.9%	△0.7%	0.3%	0.3%	0.3%	0.4%

SCFI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12/30(’22년)	12/29(’23년)	6/28	7/5	7/12	전주비(7/5)	전년말비
SCFI	1107.55	1759.57	3714.32	3733.8	3674.86	△1.6%	108.8%

BDI (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12/23(’22년)	12/22(’23년)	1/1	7/4	7/5	7/8	7/9	전주비(7/8)	전년말비
BDI	1515	2094	1308	1947	1997	1993	1942	△2.6%	△7.3%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문의

KOTRA 글로벌공급망실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

gvc_monitoring@kotra.or.kr
gvc_research@kita.or.kr



메일 구독(수신)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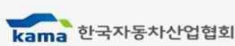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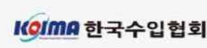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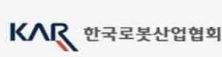


카카오톡 채널 구독

주관기관



협력기관



본지의 내용은 산업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